

# 농업분야 본격 힘겨루기

한미 FTA 5차 협상 시작

농산물 관세개방폭 등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4~8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농업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 농산물 시장의 관세개방폭,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및 관리방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양국이 4차 협상까지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입장차이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협상부터는 민감품목의 구체적인 허용량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국측에 설득시키되,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품목도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전제로 해야 양허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국의 관심품목 대부분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3일 오후 제5차 협상이 열리는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 도착, 기자들에게 협상 전략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수출이 췌조각 문제로 잇따라 좌절되면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보호무역을 강조해온 미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장악, 내년 6월에 종료되는 TPA(신축협상권한)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서 5차 협

상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분야 외에 배기량 기준의 국내 자동차세제, 무역구제분과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전체협상의 성과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 췌조각 쇠고기 수입중단

美 쇠고기업계 강력 반발

미국 쇠고기 관련 업계는 1일 한국 정부가 쇠고기에 포함된 췌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한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정치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관리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 오는 4일부터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존 레딩톤 미국육류기구의 통상 담당 부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쇠고기)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살코기에 포함돼 있는 췌조각 크기와 양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앞서 지난 달 28일 한국측이 미국 쇠고기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실리’ 찾는 지혜가 우선



박치경

정치부 차장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권 종합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밝혔던 무안 송담문화예술회관 오찬장 주변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렸다. ‘환영’과 ‘평화’가 교차한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프로젝트)의 최대 난관이었던 해남·영암일대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설레게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지원과 삼학도와 영암 대불항을 잇는 삼학대교 조기 착공도 지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노무현 당선 임기가 얼마 안남지 않았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국가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목표 아래 의지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각오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선은 싸늘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임기가 겨우 1년여 남은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말이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철회나 임기중단 발언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터에 광주·전남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 또 풍선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라며 평가절하했다. 여기에도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관에 노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실현가능성을 놓고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처럼 양분된 견해 속에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진다.

역시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한 인사의 주장이다. “대통령의 지역개발 지원 약속을 믿고 붕붕 떠있거나, 무턱대고 폄하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누가 뒀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끌어안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채근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지론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대선은 광주·전남지역 입장에서 ‘호기’(好機)일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힘써줄 사람에게 표를 주는 이른바 ‘전략적 선택’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후보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표심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권자의 의식을 갖자는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노 대통령은 지원을 약속한 서남권 발전 구상은 뒤떨어진 지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종합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각 후보가 발휘할 수 있는 서남권 공약은 지금까지의 개발계획과 대동소이하다해도 무리가 없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힘은 특정 정치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모아진 지혜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 unipark@kwangju.co.kr

## 도피 ‘제이유 여왕’ 로비 자금책?

〈최고수당 받은 김모 여인〉

100억원 쟁겨...‘제3의 로비스트’ 의혹

‘단순한 크라운(1번 사업자)인가 로비의 돈줄인가’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크라운’으로서 34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최고 수당을 받은 김모(47) 여인이 세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는 파라미드형인 제이유의 직급 구조에서 유일한 ‘크라운’으로 모든 회원을 ‘다운’(하위사업자)으로 거느리고 이들이 올린 매출액을 발판으로 100억원의 수당을 쟁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주수도(50) 회장이 김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제이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김씨가 주 회장의 명령 등에 깊이 관여하고 로비자금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주 회장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주 회장의 베타이틀 잡고 흔들 정도였다’는 말이 돌 정도로 주 회장과 가까운 숨은 권력자였다는 얘기가 제이유 안팎에선 기정 사실로 통한다. 또 김씨가 직접 나서 검찰 인맥을 만

들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와 김씨가 한의상씨, 강모(46·여)씨에 이은 제3의 로비스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당시 주 회장과 김씨 체포조를 꾸리고 신문에 현상수배 광고를 냈던 제이유사업 피해자고소인단모임(고소모)은 “김씨만 잡히면 제이유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인 한의상씨와 거액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중앙지검 K차장검사의 매형은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이유와의 돈거래 경위와 거래 과정에서 제이유 그룹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념계획 5029’ 합의

한미 ‘北 급변사태 대응책’ 마련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완성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일 “한미가 정권 붕괴 등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런 합의에 따라 내년 말 개념계획 5029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내년 초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간에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일식당 한가위**는 단어가 가진 순수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단아한 마음으로 격조높은 서비스와 정성 맛갈스런 손맛으로 손님들의 품격을 한차원 높여드릴 것입니다.

www.hangawee.com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모임
- 상견례
- 각종세미나(60인 연회장 완비)
- 돌잔치
- 고향연

**12인승 차량운행**

**한식 일식 한가위** 예약전화 **TEL.(062)234-5815, 234-1116** (신양파크호텔 2층)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설운도**

**12월 7, 8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부킹천국 100%**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부속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계좌에 드려드립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FAX: 227-9500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매일주(주)광주일보사

**상가건물(오피스텔)매매**

·전남 구례군 구례읍 최중심 상업지역  
·대지88평, 연건평350평  
·매매8억(월임대료 8백이상 재산증식 최고지)  
·지하 65평 1층 상가3개  
2층 레스토랑 사무실 3층 원룸7개(8평형)  
4층 원룸5개(10평형) 5층 주차  
☎018-694-6600, 061-742-4958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업인수합병, 기업진단  
**T.062)523-6701~2**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 화순읍 근교(5분거리)
- 허가필(건축가능)
- 남향 전망좋은
- 가격 전화로 결정

☎061)375-8821, 011-629-6051

**르노삼성자동차**

중흥지점

과장 **이선이**  
전남대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  
**017-601-1004**  
(전세)  
SM7(30만원 할인, 부분 무이자)  
뉴SM3(신규무이자 20만원 할인) DM84비게이전지급  
뉴SM5 LPG차  
SM3월 SM7(카드선할인 30만원)  
해남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KIA**

**기아자동차 신시청대리점**

소장 **강경정**  
(오피스-카렌스)  
로체 시승차  
상시대기!!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062)372-8200, 011-604-9632**  
해남출신, 무등중, 인성고, 전대출

**현대자동차**

**전대판매대리점**

신차상당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신형 아반떼 계약접수중!"  
쏘나타 II 출시 계약중!!  
서원오  
광주광역시 37기 출생  
**011-615-7319**